B. B. 워필드 『성경론: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이경직·김상엽 역)

워필드 · 제6장 성경 영감에 관한 실제 문제

워필드 『성경론: 성경의 영감과 권위』(이경직·김상엽 역, CLC), 제6장, 텍스트판 136-173쪽. 원래는 "The Real Problem of Inspiration"이라는 논문으로, 1893년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Review에 실렸다.

🧭 흐름 한눈에

19세기 말 여러 학자가 “비평 연구가 완전 영감·축자 영감 교리를 무너뜨렸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이 장은 출발한다. 워필드는 먼저 쟁점을 다시 정리한다. 교회가 이 교리를 믿는 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성경 저자들이 이 교리를 가르쳤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믿을 만한 교리 교사다”라는 점이다. 그러니 이 교리를 버리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사도들을 교사로 믿지 않는 일이 된다. 이어서 그는 이 결론을 피하려는 네 가지 시도를 하나씩 검토한다. 그리스도와 사도를 갈라놓기, '순응' 이론, 가르침과 견해를 나누기, 성경의 '현상'으로 교리를 고치기다. 그리고 넷 모두 같은 곳에 이른다고 보여 준다. 성경을 교사로 믿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영감 교리를 받치는 증거가 사도들의 신뢰성을 받치는 증거 전체만큼 무겁다고 말한다. 그래서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은 확실한 증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오류가 아니라 '아직 풀리지 않은 난제'로 다뤄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 절별 정리

📜 1. 들어가며: '영감의 현재 문제'란 무엇인가

1880~90년대 영국과 미국의 학자들(체인, 호튼, 고어의 『세상의 빛』, 글래든, 세이어, 샌데이, 브릭스)은 비평 연구의 결과 때문에 완전 영감 교리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전 영감은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교리다. 브릭스는 비평이 “축자 영감과 성경 무오론을 파괴했다”고까지 말했다.

신자도 성경을 직접 읽고 깨달을 수 있다는 개신교 교리)을 잃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신자의 양심을 사람 교사의 손에 넘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위기에 빠진 것은 교리가 아니라 유행하는 한 구약비평 학파라고 답한다. 동시에 교회의 교리도 정당한 비판에는 언제나 열려 있다고 인정한다. 교회의 교리는 이렇다.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성령의 감독 아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드러낸다. 그 감독은 단어 선택까지 미치고(축자 영감), 그래서 오류가 없다(무오성). 이 교리의 근거는 성경 저자들이 이것을 가르쳤고 그들이 믿을 만한 교사라는 데 있다. 따라서 비평이 이 교리를 무너뜨리려면 “저자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거나 “저자들은 믿을 수 없다” 중 하나를 증명해야 한다.

1. 위기는 교리가 아니라 특정 비평 학파의 것
2. 교회 교리: 공동 저작, 단어까지 감독, 무오
3. 근거 두 가지: 저자들이 가르침 + 저자들의 신뢰성
4. 적절한 증거가 반박 전엔 반대는 '난점'일 뿐
5. 진짜 질문: 정확한 해석이 말하는 성경의 교리는?

> **(직접 인용 없음)**
> 이 절은 논쟁의 지형과 논리 원칙(증거 대 난점)을 세우는 도입부다

📜 2. 성경 영감 교리의 분명함

워필드는 첫째 근거부터 다룬다. 신약 저자들이 높은 영감 교리를 가르쳤다는 것은, 그 교리를 믿지 않는 비평가들조차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파라, 플라이더러, 톨룩, 스튜어트, 스태퍼가 그렇게 인정했다. 특히 로테는 이 교리를 거부하면서도 그 근거를 자세히 정리했고, 워필드는 이를 그대로 증거로 삼는다. 신약 저자들은 구약을 인용할 때 사람 저자의 이름 대신 “성경이 이르되”라고 쓴다. 하나님이나 성령이 “말씀하셨다”고도 쓴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화자가 아닌 구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ὁ θεὸς λέγει, 호 테오스 레게이)로 인용한다. 바울은 구약이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단어 하나(단수 "씨“)에 논증을 건다. 그러므로 축자 영감 교리는 블래키의 말처럼 ”몇 개의 따로 떨어진 구절“에 기댄

가르쳤는지 재구성하는 학문)의 결론이다. 그렇다면 진짜 쟁점은 하나로 좁혀진다. 신약 저자들은 믿을 만한 교리 안내자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거부하고 다른 교리를 만들어도 되는가?

1. 비평가들도 “신약 저자들은 높은 영감관”을 인정
2. 저자 이름 대신 “성경이 이르되”, “성령이 이르되”
3. 하나님이 화자가 아닌 구절도 하나님 말씀으로
4. 축자 영감은 성경신학의 결론이지 몇 구절 아님
5. 쟁점: 사도들은 믿을 만한 교리 교사인가

> **로마서 1:2; 디모데후서 3:15**
> '거룩한 성경'(γραφαῖς ἁγίαις), '거룩한 기록'(τὰ ἱερὰ γράμματα)을 저자 이름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부른다
>
> **로마서 1: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
> **디모데후서 3: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 **요한복음 7:38; 10:35; 19:36-37; 20:9; 사도행전 1:16; 야고보서 2:8; 로마서 9:17; 갈라디아서 3:8, 22; 4:30; 베드로전서 2:6; 베드로후서 1:20**
> “성경(ἡ γραφή)이 이르되”라는 인용 방식.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테의 목록을 워필드가 채택)
>
> **요한복음 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
> **요한복음 10: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
> **요한복음 19:36-37** 36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요한복음 20:9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사도행전 1:16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야고보서 2:8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로마서 9:17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8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22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4:30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2:6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베드로후서 1:20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마태복음 1:22; 2:15; 사도행전 4:25; 13:34

구약 인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소개한다

마태복음 1:22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마태복음 2:15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4:25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사도행전 13:34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사도행전 1:16; 4:25; 28:25; 히브리서 3:7; 9:8; 10:15; 베드로전서 1:11; 베드로후서 1:20-21

구약 인용을 “성령이 말씀하신 것”으로 소개한다 (번역서의 '행 1:6'은 1:16의 오기)

사도행전 1:16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사도행전 4:25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사도행전 28:25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히브리서 3:7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 9:8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히브리서 10:15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베드로전서 1: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히브리서 1:6-8; 4:4, 7; 7:21; 10:30

하나님이 3인칭으로 언급되는 구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로 인용한다. 엄격한 영감관의 증거다

히브리서 1:6-8 6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7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8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히브리서 4:4 제칠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칠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히브리서 4:7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히브리서 7:21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서 10:30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히브리서 1:10

시편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한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디모데후서 3:16

'거룩한 기록' 자체를 θεόπνευστος(테오프뉴스토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라 부른다. 사람만이 아니라 기록 자체가 영감되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로마서 4:23-24; 15:4; 고린도전서 9:10; 10:11

구약의 사건과 그 기록을 구분하고, 기록은 신약 신자를 위해 의도되었다고 말한다

로마서 4:23-24 23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로마서 15: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9:10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0:11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15-16

구약의 글자 하나(단수 '씨')에 논증을 세운다. 문자까지 권위가 있다는 견해다

15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6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 3. 성경론의 수정과 성경 권위의 약화

워필드는 이렇게 주장한다. 완전 영감 교리의 핵심을 고치면 사도들의 교사 권위가

약해지면 그 자리를 다른 권위가 차지한다. 이성, 감정, 개인의 신앙 의식, 또는 교회 지배로 굳어지기 쉬운 공동체 의식이다. 실제 예로 샌데이는 '학자들의 합의와 교회의 발전하는 의식'을, 고어는 “교회를 믿지 않고는 성경을 믿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세웠다. 스터렛은 '기독교 공동체 의식'을 모든 신자가 따라야 할 권위 있는 이성으로 삼았다. 워필드가 보기에 “기록된 바”라는 말 한마디로 충분했던 예수님과 사도들의 자리에서, 이들은 다른 확신의 근거를 찾아 나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낮은 성경관을 정당화하려는 길을 네 가지로 나눠 검토하겠다고 예고한다.

1. 영감 교리 수정 = 사도 권위 약화
2. 빈자리는 이성·감정·개인 의식·교회가 채움
3. 고어: “교회 없이는 성경 믿기 어렵다”
4. “기록된 바”로 충분했던 예수·사도와 대조
5. 낮은 성경관을 위한 네 가지 길을 검토

> **(직접 인용 없음)**
> “기록된 바”라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인용 관행을 기준점으로 삼는다

📜 4. 첫째 길: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갈라놓기

로테는 사도들의 성경관은 당시 유대교의 높은 견해를 따른 것이고, 예수님은 그와 달리 자유로운 견해를 가지셨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사도를 버리고 예수께로 가자고 했다. 워필드는 로테가 이 구분을 세우려고 성경을 억지로 짜냈다고 비판한다. 예수께서는 구약의 서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셨다.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고 하셨고, 일점일획까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다. 시편 110편의 기록된 단어에 논증을 거셨다. 로테가 증거로 든 구절들은 성경 자체가 아니라 성경을 잘못 이해한 서기관들을 꾸짖는 말씀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예수님은 글을 남기지 않으셨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오직 사도들의 펜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시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자신의 가르침의 완성으로 묶으셨다. 그러니 사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믿을 수 없게 된다. 사도들을 떠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는 외침은 결국 성경의 그리스도를 떠나 우리가 만든 그리스도에게로

1. 로테: 사도 성경관 = 유대교, 예수는 자유로움
2. 실제로는 예수도 같은 높은 성경관
3. 로테의 증거 구절은 서기관 꾸짖음일 뿐
4. 예수는 사도의 펜으로만 우리에게 전해짐
5. 사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는 상상의 그리스도

마태복음 19:4-5

창세기 본문(번역서는 '아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신다. 예수님도 사도와 같은 성경관을 가지셨다

>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요한복음 10:35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와츠의 설명대로, 어떤 구절이 '성경'에 속한다는 것만으로 무오가 보장된다는 예수님의 판단이다

>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마태복음 5:18; 누가복음 16:17

율법의 '일점일획'(ἰῶτα ἓν ἢ μία κεραία)은 기록된 형태의 율법에만 해당한다. 문자까지 권위를 가진다

> **마태복음 5: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 **누가복음 16:17**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마태복음 22:43-45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110편에서 메시아를 '주'라 불렀다. 예수님의 논증은 기록된 시편 단어에 근거한다

> 43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5]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마태복음 22:29; 마가복음 12:24; 요한복음 5:39

로테가 “예수님은 성경 권위를 낮추셨다”는 근거로 쓴 구절이다. 실제로는 성경을 잘못 쓴 서기관에 대한 책망이다

마태복음 22: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마가복음 12:2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요한복음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6:12-15

진리의 영이 사도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의 가르침은 한 전체다

[12]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15]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마태복음 7:16 (암시)

로테가 “열매로 분별하라”는 원리로 사도들의 성경 해석을 정죄한 대목이다

마태복음 7:1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스튜어트는 이렇게 보았다. 사도들이 높은 영감관을 쓴 것은 유대인 청중의 선입견에 맞춘 전략, 곧 순응(accommodation)이었다. 순응은 상대의 생각에 맞춰 말을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워필드는 순응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도들이 그 견해를 실제로는 공유하지 않았어야 하고, 그런데도 가르침을 거기에 맞췄어야 한다. 그런데 스튜어트 자신이 사도들이 그 견해를 공유했다고 인정한다. 그러자 스튜어트는 더 급진적인 원칙으로 옮겨 간다. 사도들이 당시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곳에서는 그들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브레데도 비슷하게 그 견해를 '헬레니즘적 영감관'으로 돌렸다. 워필드는 이 원칙대로라면 '새로운 것'만 권위가 있는 셈이라고 꼬집는다. 그러면 비슷한 말이 다른 곳에도 있는 황금률조차 권위를 잃는다. 또 순응은 지혜로운 교수법과 전혀 다르다. 진리를 학습자 수준에 맞춰 차근차근 가르치는 것(예수님의 점진적 가르침, 바울의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과, 시대의 오류를 하나님의 진리라고 가르치는 것은 다른 일이다. 사도들에게 순응을 적용하면 그들이 진리와 함께 오류도 가르쳤다는 말이 된다. 결국 지식이 부족했거나 정직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1. 순응설: 사도는 청중 선입견에 맞췄을 뿐
2. 순응은 '공유 안 함'이 전제인데 실제론 공유
3. '당시 생각과 같으면 무시' = 새로움만 권위
4. 점진적 교수 ≠ 오류를 진리로 가르침
5. 결국 사도의 지식이나 정직을 의심하게 됨

> **요한복음 16:12**
> 예수님의 점진적 가르침이다. 듣는 이의 수준을 배려하는 것은 오류에 순응하는 것과 다르다
>
>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 **갈라디아서 2:11-14**
>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위선으로 사람들을 오류에 머물게 한 사례다. 순응설이 사도들에게 씌우는 모습이다
>
> 11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2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 남은

14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9:22 (암시)

바울의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 사람을 진리로 이끌기 위한 무해한 지혜다

고린도전서 9:22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행전 17:21 (암시)

새로운 것만 말하고 듣는 아테네 정신. '새로움 = 권위'라는 기준에 대한 풍자다

사도행전 17:21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마태복음 7:12; 누가복음 6:31 (역주)

황금률. 비슷한 격언이 다른 데 있다고 권위를 잃는다면 그 기준은 터무니없다

마태복음 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누가복음 6:31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 6. 셋째 길: '가르침'과 '견해' 나누기

파라는 바울이 당대 랍비와 필로처럼 성경을 세부까지 무오하다고 믿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개인 견해'일 뿐 '교의적 가르침'은 아니므로 따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워필드는 공식 가르침과 개인 견해를 구분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인정한다. 예컨대 지구 모양에 대한 당시 통념 같은 것이 그렇다

진술이 있다. 둘째, 파라가 바울의 견해를 알아낸 출처가 바로 바울의 공식 서신이다. 그 견해가 가르침 속에 전제되고 섞여 있다는 뜻이다. 명시적 '교의 진술'만 가르침으로 인정하면 큰 손실이 생긴다. 비유로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도, 성경 전체에 전제된 근본 진리도, 성경신학이라는 학문도 다 사라진다. 파라는 그 견해를 “우상숭배, 신성모독, 페티시 숭배”라고까지 불렀다. 그렇다면 그 뿌리에서 나온 바울의 가르침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바울의 생각과 완전히 따로 노는 '교의 진술'은 발람식 주술적 신탁이라야 가능하다. 따라서 토대(근본 개념)와 상부구조(명시적 가르침)는 함께 받거나 함께 버릴 수밖에 없다.

1. 파라: 바울은 무오를 믿었지만 '견해'일 뿐
2. 디모데후서 3:16은 명시적 가르침
3. 그 견해는 바울 서신 자체에서 읽어 낸 것
4. 명시적 진술만 인정하면 비유·전제 다 잃음
5. 토대와 상부구조는 함께 서고 함께 무너짐

> **디모데후서 3:16**
> 영감에 대한 명시적 진술이다. 구조를 핑계로 부정할 수 없고, 바울이 의도한 뜻으로 읽어야 한다
>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갈라디아서 2:11 이하**
> 바울의 '개인 견해'를 알려 줄 외부 기록이 있다면 이런 종류일 것이라는 예시다. 파라에게는 그런 자료가 없다
>
> 11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

> **마태복음 23:23 (암시)**
> 박하·회향의 십일조는 바치고 더 중요한 것은 버림. 근본 개념보다 부수 진술을 앞세우는 태도에 대한 비유다

>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 **민수기 22-24장 (암시)**
> 발람.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분리된 신탁의 유일한 성경적 유사 사례로, 사도들은 그런 경우가 아니다

📜 7. 넷째 길: '사실'로 '교리'를 고치기

가장 널리 쓰이는 길이다. 성경의 '현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영감 교리를 고치자는 것이다. 여기서 '현상'은 본문 사이의 차이, 표현 방식, 구조 같은 관찰된 특징을 말한다. 빈센트는 “영감은 성경의 현상과 일치해야 한다”고 했다. 호튼은 디모데후서 3:16의 '영감'을 바울의 뜻을 조사하지 않고 자기가 이해한 성경 개념으로 채웠다. 블래키는 성경 진술보다 성경 표면의 어려움을 더 강조했다. 워필드는 와츠의 말을 빌려 답한다. 상대의 원리는 아직 설명되지 않은 '겉보기 불일치'에서 추론한 것이지만, 이쪽 원리는 선지자와 사도와 그리스도의 명시적 선언에 근거한다. 성경의 가르침을 현상으로 '교정'하는 것은 성경이 교사로서 믿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이는 다윈의 이론을 다윈이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연을 연구한 결과로 정하겠다는 것만큼 이상하다. 워필드는 귀납법을 거부하지 않는다. 귀납법은 사실을 모아 결론을 끌어내는 방법이다. 다만 영감 교리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현상'은 성경 자체의 주장과 신약이 구약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본다. 관찰된 사실이 해석을 돕는 것은 환영한다. 과학이 창세기 1장 이해를 돕고, 예언의 성취가 예언을 밝혀 주듯이 말이다. 하지만 해석 '과정'을 바로잡는 것과 해석으로 확인된 성경의 교리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르다.

1. 현상(본문 특징)으로 교리를 고치자는 주장
2. 상대 근거: 아직 안 풀린 '겉보기' 불일치
3. 우리 근거: 그리스도·사도의 명시적 선언
4. 귀납법 찬성. 첫째 '현상'은 성경의 자기주장
5. 해석 과정 수정 ≠ 성경 교리 자체 수정

호튼과 빈센트는 '영감'의 뜻을 바울에게서 묻지 않고 자기 개념을 대입한다.
θεόπνευστος의 뜻은 바울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조사해서만 알 수 있다 (각주 55)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창세기 1장

관찰된 사실(과학)은 본문 이해를 돕지만, 출발점은 언제나 본문이다

> [1]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6]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

📜 8. 성경 영감 교리를 받치는 방대한 증거

흔히 영감 교리는 증거가 빈약하다고 여겨진다. 워필드는 그 증거의 무게가 성경 저자들이 믿을 만한 교리 교사라는 증거 전체의 무게와 같다고 말한다. 성육신,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 이신칭의, 부활을 받치는 증거와 똑같다는 것이다.
성경은 교리를 여러 방식으로 가르친다. 이신칭의처럼 명시적으로 진술하기도 하고, 삼위일체처럼 흩어진 요소를 모아야 하기도 한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속처럼 성경 전체에 깔려 있기도 하고, 타락한 천사처럼 지나가듯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묻는 것은 “몇 번, 어떻게 가르쳤나”가 아니라 “실제로 가르쳤나”다. 그 대답이 '그렇다'면 증거의 무게는 똑같다. 동시에 워필드는 영감이 기독교의 토대라고 말하지 않는다. 영감이 없었어도 기독교는 참이고, 구원은 전해졌을 것이다. 순서로 보면 성경의 진본성(정말 그 저자의 글인가), 역사적 신빙성, 전반적 신뢰성을 먼저 입증하고, 영감은 성경에 관한 마지막 사실이다. 그러나 바로 그 신뢰성 때문에 성경이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내용도 받아야 한다. 예수님이 구약에 인을 치셨고 성령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함께하신다면, 이 교리의 증인은 결국 성자와 성령

1. 영감 교리 증거 = 사도 신뢰성 증거 전체
2. 명시든 암시든, '실제로 가르쳤나'가 기준
3. 영감은 기독교의 토대가 아니다
4. 진본성·신빙성 먼저, 영감은 마지막 사실
5. 신뢰하는 그 기록이 영감을 증언한다

고린도전서 2:13

바울은 성령이 가르치신 말로 전한다고 주장한다. 사도의 가르침에 성령의 승인이 있다

>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12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 (번역서의 '1:13'은 인용문 내용상 1:12의 오기)

>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4:37; 데살로니가후서 2:15; 3:6-14

사도의 말과 글이 주의 명령의 권위를 갖는다. 그들의 성경론에도 성령의 인이 쳐진다

> **고린도전서 14:37**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 **데살로니가후서 2:15**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 **데살로니가후서 3:6-14** 6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7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8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10]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

“영감이 없었더라도 기독교는 우리에게 전해졌을 것이다.”

📜 9. 모순처럼 보이는 사실들을 막는 강한 추정

워필드는 같은 명제를 다른 쪽에서 본다. 우리는 '현상'을 연구할 때 강한 추정(presumption)을 갖고 들어간다. 추정은 반대 증명이 나오기 전까지 사실로 간주하는 판단이다. 곧 “성경에 오류는 없고, 모순처럼 보이는 것은 겉보기일 뿐”이라는 추정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성육신, 원죄,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처럼 머리로 다 풀리지 않는 교리도 다 이해하기 전에 믿는다. 그렇다면 영감 교리만 모든 난제가 풀린 뒤에 믿으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그렇다고 검증을 피하자는 말은 아니다. 성경의 주장은 사실과 대조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하고, 정직하게 검토하지 않는 것은 죄다. 다만 사랑하는 친구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들으면 더 강한 증거를 요구하듯, 사도들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오류'에도 그만큼 강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 증거는 수학처럼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 '개연적' 증거(높은 확률로 참임을 보여 주는 증거)다. 하지만 그 양과 무게가 커서 확신은 증명에 맞먹는다. 억지 조화는 금물이다. 억지로만 맞출 수 있다면 그대로 두면 된다. 내가 지금 풀지 못한다고 해서 풀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찰스 핫지의 말대로 난제들은 파르테논 신전 대리석 속 모래알 같고, 연구가 진행될수록 줄어들어 왔다. 누가의 '총독' 칭호와 루사니아 같은 사례가 그렇다. 결론은 이렇다. 실제 문제는 새 문제가 아니라 옛 문제다. 우리 교리의 근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인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인가?

1. 겉보기 모순은 증명 전엔 '난제'로 다룬다
2. 다른 교리도 다 이해하기 전에 믿는다

5. 문제의 본질: 성경이냐 사람이냐

요한복음 3:16 (암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해 독생자를 주셨다. 이성으로 받기 어려워도 우리가 믿는 교리의 예다

>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3:7 (암시)

구브로의 '총독'(proconsul) 칭호. 비평가들이 오류라 했으나 발견으로 입증된 사례다

> **사도행전 13:7**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누가복음 3:1 (암시)

분봉왕 루사니아. 역시 조롱받다가 확인된 누가의 정확성이다

> **누가복음 3:1**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다니엘서 (장절 없음)

아직 해명되지 않은 소수의 난제 예다. 그래도 '최후의 참호'로 삼을 이유는 없다

"만일 우리가 억지로 조화시킬 수 있을 뿐이라면, 조화시키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두도록 하자."

⚖️ 오해와 반론

📖 용어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교리.

축자 영감(verbal inspiration)
성령의 감독이 생각만이 아니라 저자가 고른 단어에까지 미친다는 교리. 받아쓰기라는 뜻은 아니다.

무오성(inerrancy)·불오성(infallibility)
무오성은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뜻이고, 불오성은 성경이 사람을 그르치지 않는 확실한 안내자라는 뜻이다. 이 장의 핫지 인용에 두 말이 함께 나온다.

θεόπνευστος(테오프뉴스토스)
디모데후서 3:16의 단어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이라는 뜻. 그 뜻은 우리 생각이 아니라 바울의 의도에서 찾아야 한다.

γραφή(그라페)
'기록된 것', 곧 '성경'. 신약은 “성경이 이르되”라고 하며 이를 하나님 말씀과 같이 다룬다.

순응(accommodation)
듣는 사람의 생각에 맞춰 말을 조정하는 것. 이 장에서는 사도들이 유대인의 잘못된 성경관에 맞춰 가르쳤다는 비평가의 주장을 가리킨다.

성경의 '현상'
본문 사이의 차이, 표현, 구조처럼 성경에서 관찰되는 특징들.

성경신학
각 성경 저자가 실제로 무엇을 가르쳤는지 재구성해 하나로 엮는 학문.

대인논증(argumentum ad hominem)
상대가 받아들이는 전제를 빌려 반박하는 논증. 로테는 요한복음 10:35를 이렇게 깎아내렸다.

개연적 증거와 추정
수학처럼 100%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높은 확률로 참임을 보여 주는 증거, 그리고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영감 교리의 근거는 “성경 저자들이 가르쳤고, 그들이 믿을 만한 교사”라는 데 있다.
- 신약 저자들이 높은 영감관을 가졌다는 것은 비평가들도 인정하는 해석상의 사실이다.
- 이 교리를 고치려는 네 가지 길(그리스도와 사도 분리, 순응, 견해와 가르침 구분, 현상으로 교정)은 모두 성경을 교사로 믿지 않는 결과에 이른다.
- 영감은 기독교의 토대는 아니다. 그러나 그 증거의 무게는 사도들의 신뢰성 증거 전체와 같다.
- 그러므로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은 정직하게 검증하되, 확실한 증명 전까지는 오류가 아니라 난제로 다룬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15편 · 무오성 · '틀림이 없다'는 말의 정확한 뜻
- 성경론 16편 · 모순처럼 보이는 곳들 · 성경의 문제들에 답하기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